

흰곰한테 시집갈게요

글 · 박안나 그림 · 아나톨리 잇킨





성탄절 이브, 모야모와 아누는 흥겹게 캐럴을 부르며
반짝반짝 예쁜 크리스마스트리로 장식된 거리를 걷고 있었지.
그때 어디선가 산타 할아버지가 나타나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 주었어.
그런데 모야모와 아누의 차례가 되자 선물이 다 바닥났지 뭐야.

얘들아, 미안하구나.
대신 내가 썰매를
태워 줄까?

와, 신 난다!

산타 할아버지,
핀란드에서
오셨죠?

산타 마을은
흰곰이 사는
노르웨이에도
있어!

그래, 내가 바로
노르웨이에서 왔지!
자, 이참에 노르웨이 구경도
시켜 주마!

산타 마을과
흰곰이 있는
노르웨이로!

가자!





흰곰한테 시집갈게요

글 · 박안나 그림 · 아나톨리 잇킨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는(은)

모야모, 아누와 함께 유럽의 노르웨이로 떠났어요.
그곳에서 예쁘고 마음씨 착한 막내와 무섭지 않은 흰곰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주 먼 옛날 노르웨이에 자식이 많은 가난한 농부가 살았어.

끼니를 자주 거를 만큼 가난했지만 아이들은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웠지.

그중에서도 막내딸은 뛰어나게 아름답고 마음씨도 고왔대.

모두들 가시덤불에 핀 한 떨기 장미 같다고 했단다.

추운 어느 날이었어. 온 가족이 난롯가에 둘러앉아 일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누군가 ‘쾅! 쾅! 쾅!’ 거세게 문을 두드렸어.

깜짝 놀란 농부가 비쭉 문을 열고 나가자, 웬 흰곰이 넙죽 인사를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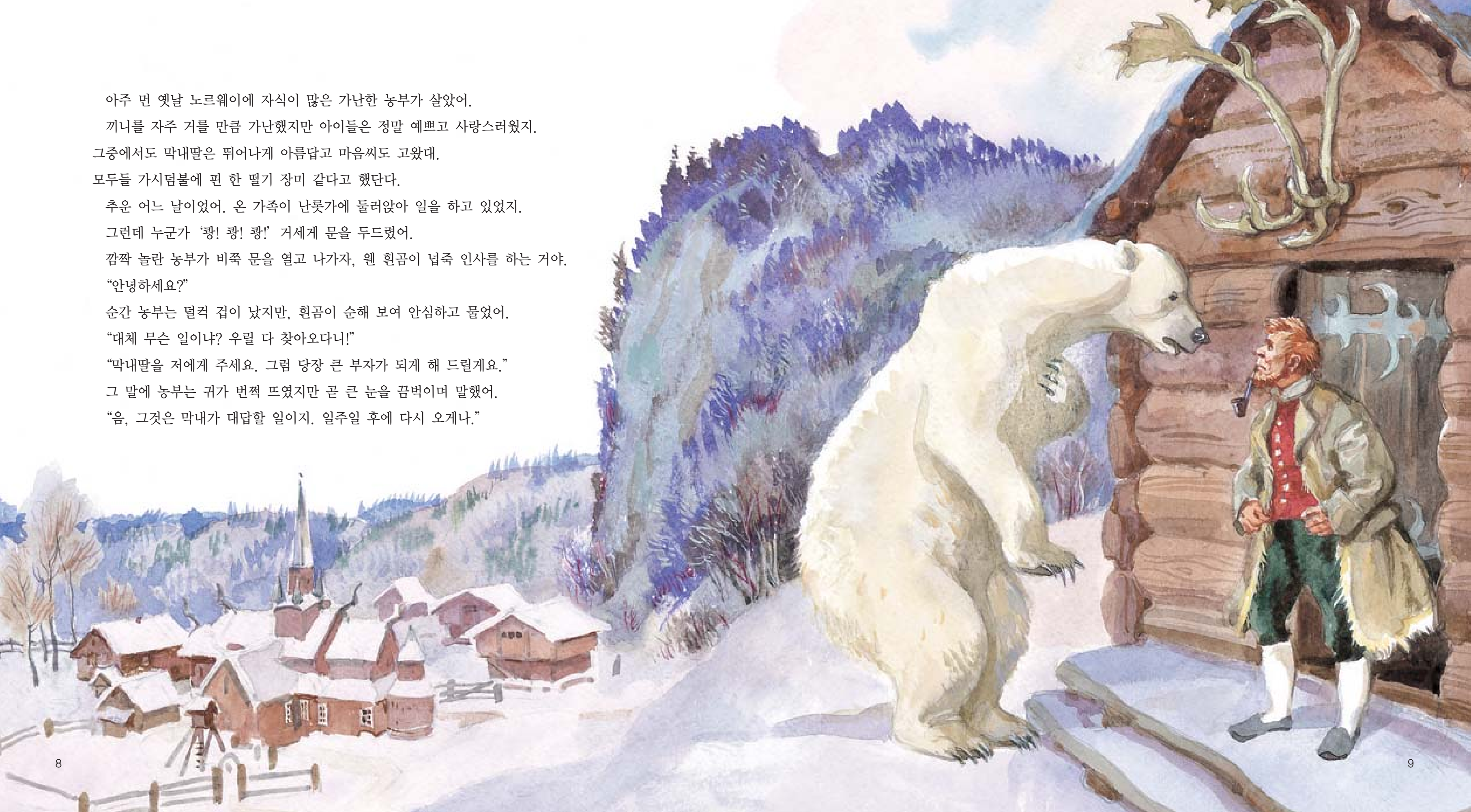
순간 농부는 덜컥 겁이 났지만, 흰곰이 순해 보여 안심하고 물었어.

“대체 무슨 일이냐? 우릴 다 찾아오다니!”

“막내딸을 저에게 주세요. 그럼 당장 큰 부자가 되게 해 드릴게요.”

그 말에 농부는 귀가 번쩍 뜨였지만 곧 큰 눈을 깜빡이며 말했어.

“음, 그것은 막내가 대답할 일이지.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게나.”



농부의 말을 들은 식구들은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단다.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긋지긋한 일은 그만 해도 될 거야!”

“맛있는 음식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겠지?”

“날마다 공주님처럼 예쁜 옷도 입을 수 있어!”

“폭신폭신했던 침대에서 잠자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도 하고!”

하지만 막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

“난 싫어요! 흰곰한테 시집가고 싶지 않아요!”





매일매일 식구들은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어.

마음 착한 막내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지. 결국 울먹이며 말했단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흰곰한테 시집갈게요!”

그 말을 듣고 식구들은 갑자기 바빠졌단다.

물을 길어 막내에게 목욕을 시켜야지,

누덕누덕 기운 옷은 빨아 입혀야지, 몸단장도 시켜야지,

모두들 야단법석을 떨었어.

“우린 이제 부자가 되는 거야. 막내 덕분에!”

“그래! 가난하다는 건 정말 불행하고 슬픈 일이지.”

“흰곰이 막내에게도 분명 잘해 줄 테니 모두 잘된 일이야!”

“자, 막내 머리에 꽃으로 만든 왕관을 씌워 주자!”

“꽃 목걸이는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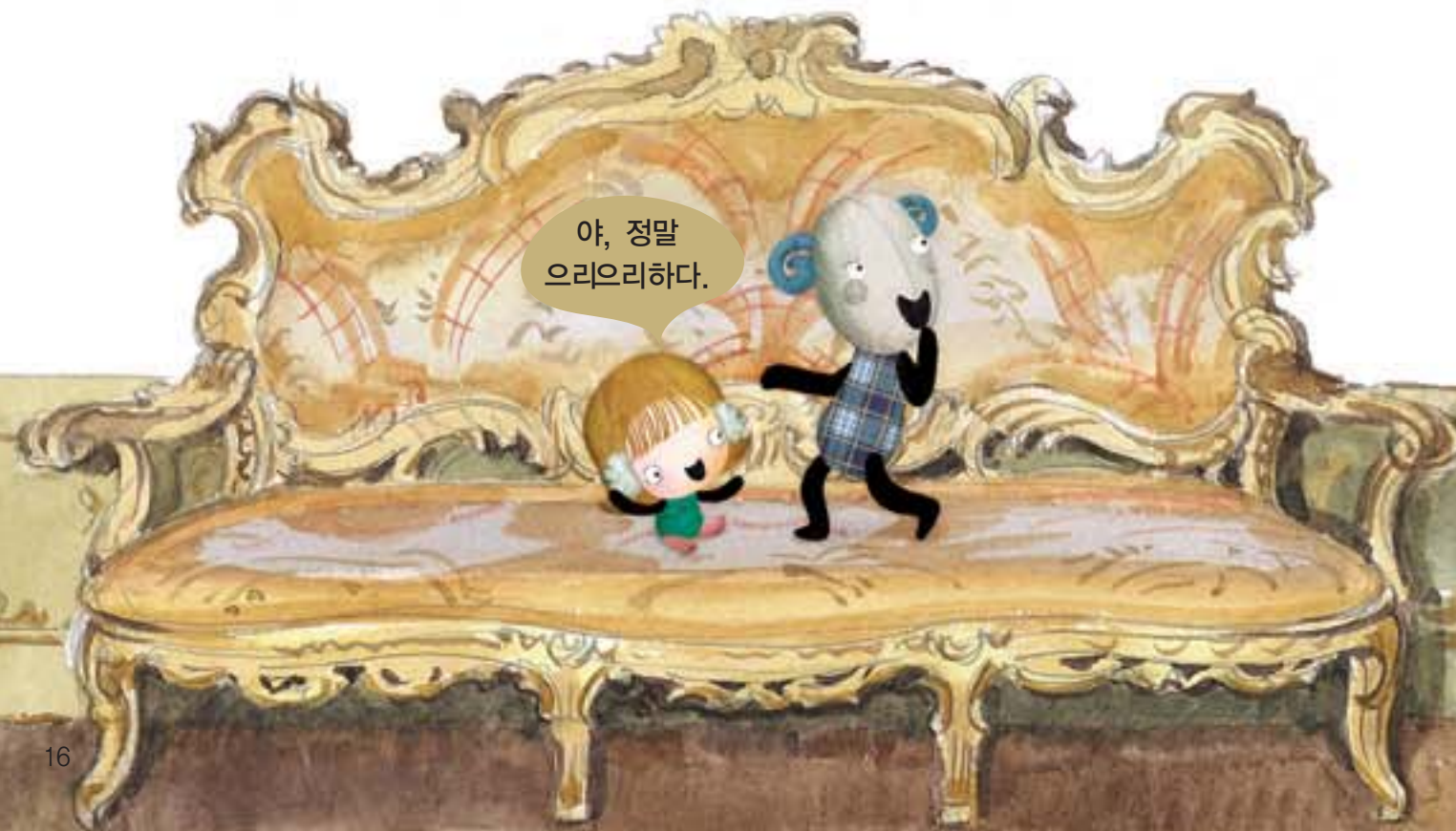
“야, 정말 예쁘겠다! 흰곰이 보면 깜짝 놀랄 거야.”



마침내 일주일이 지나자 흰곰이 다시 찾아왔어.
 예쁘게 치장한 막내는 훌쩍훌쩍 울면서 집을 나섰고,
 기뻐하던 식구들도 이별의 눈물을 흘리며 막내를 보냈단다.
 “아유, 다리 아파! 어디까지 가야 해요?”
 흰곰을 따라 가파른 산길을 힘겹게 오르던 막내가 물었어.
 “힘들지요? 자, 내가 무섭지만 앓다면 등에 올라타요.”
 지친 막내는 흰곰의 등에 덩석 올라타 털을 꼭 붙잡았지.
 흰곰은 그렇게 흔들흔들, 또 흔들흔들,
 터벅터벅, 또 터벅터벅 하염없이 산길을 갔단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야 산속 어느 문 앞에 멈춰 섰지.
 흰곰은 문을 향해 크게 외쳤어.
 “문아, 열려라!”

헉헉!
 어, 저 문은 뭐지?

‘덜커덕!’ 문이 열리자, 눈부시게 환한 빛이 확 쏟아져 나왔어.
 막내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흰곰을 따라 문 안으로 들어갔지.
 놀랍게도 그곳에는 금과 은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성이 있었단다.
 “여, 여기가 어디죠?”
 눈이 휘둥그레진 막내가 두리번거리며 물었어.
 흰곰은 아무 말 없이 막내를 데리고 식당으로 갔지.
 그곳에는 비단 식탁보가 씌워진 식탁에 훌륭한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단다.
 “자, 맛있게 먹어요.”
 지친 막내는 놀란 것도 잠시,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 치웠어.
 “자, 필요한 게 있으면 이 종을 흔들어요.”
 식사를 마친 막내에게 흰곰이 작은 은빛 종을 건네주었어.



“아아, 피곤하구나. 좀 잤으면 좋겠는데…….”

나른해진 막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 종을 딸랑딸랑 흔들었어.
그 순간 금 침대가 놓인 아름다운 방이 떡하니 나타나지 뭐야.

막내는 뿔 듯이 기빠하며 침대로 달려가 살짝 누워 보았지.
금실로 수놓은 비단 이불은 폭신평신했어.
늘어져라 기지개를 한 번 켜고 불을 끄니, 눈이 스르르 절로 감졌단다.
그렇게 막 잠이 들려는 순간이었어.

방문이 달각 열리더니 어둠 속에 한 남자가 들어오지 않겠어?

막내는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

“누, 누구세요?”

“놀라지 마세요. 난 당신 곁에서 잠만 잘 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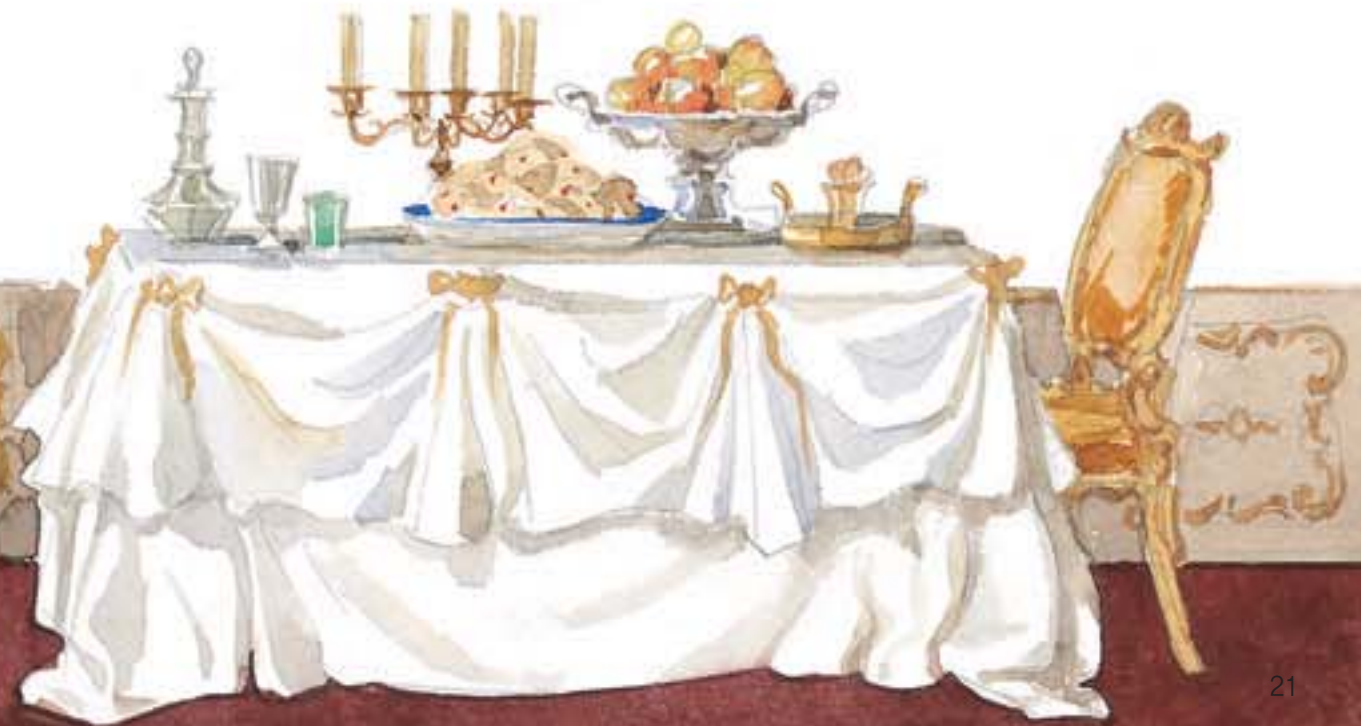
침대에 누운 남자는 곧 잠이 들었는지 낮게 코를 골기 시작했어.
잠시 두려움에 떨던 막내도 피곤에 지쳐 까무룩 잠이 들고 말았지.
이튿날 막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남자는 이미 가 버리고 없었어.
이 일은 매일 밤 되풀이되었단다.
하지만 막내는 그 남자의 얼굴을 한 번도 볼 수 없었지.



어,
저 사람은
누야?



얼마 동안 막내는 즐겁고 행복했어.
 하지만 곧 식구들이 보고 싶어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아졌지.
 그날도 막내는 창 앞에 앉아 훌쩍훌쩍 울고 있었어.
 “무슨 일이에요?”
 흰곰이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지.
 “집에 다녀오고 싶어요. 식구들이 너무 그리워요.”
 “음, 그러면 집에 데려다 주겠어요.”
 흰곰은 잠시 생각한 끝에 이어서 말했어.
 “단 엄마와 단둘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거라면 약속할게요! 꼭 약속할게요!”
 “정말이지요? 만약 약속을 어기면 우리 모두 불행해지니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며칠 후 흰곰은 막내를 등에 태우고 집으로 갔어.
 “내일 아침 다시 데리러 올 테니, 나하고 한 약속을 절대 잊지 마요.”
 집 앞에 다다르자 흰곰은 다시 한 번 당부하고 숲으로 사라졌단다.



식구들은 넓고 으리으리한 집에서 부족한 것 없이 살고 있었어.

“막내다! 막내가 왔어!”

모두들 막내를 보고 반가워 어쩔 줄 몰랐지.

막내 주위에 빙 둘러앉아 저마다 한마디씩 하느라 바빴어.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아주 좋아요. 식구들 보고 싶은 것 빼고는 모두 다.”

“우리가 이렇게 잘살고 있는 건 다 네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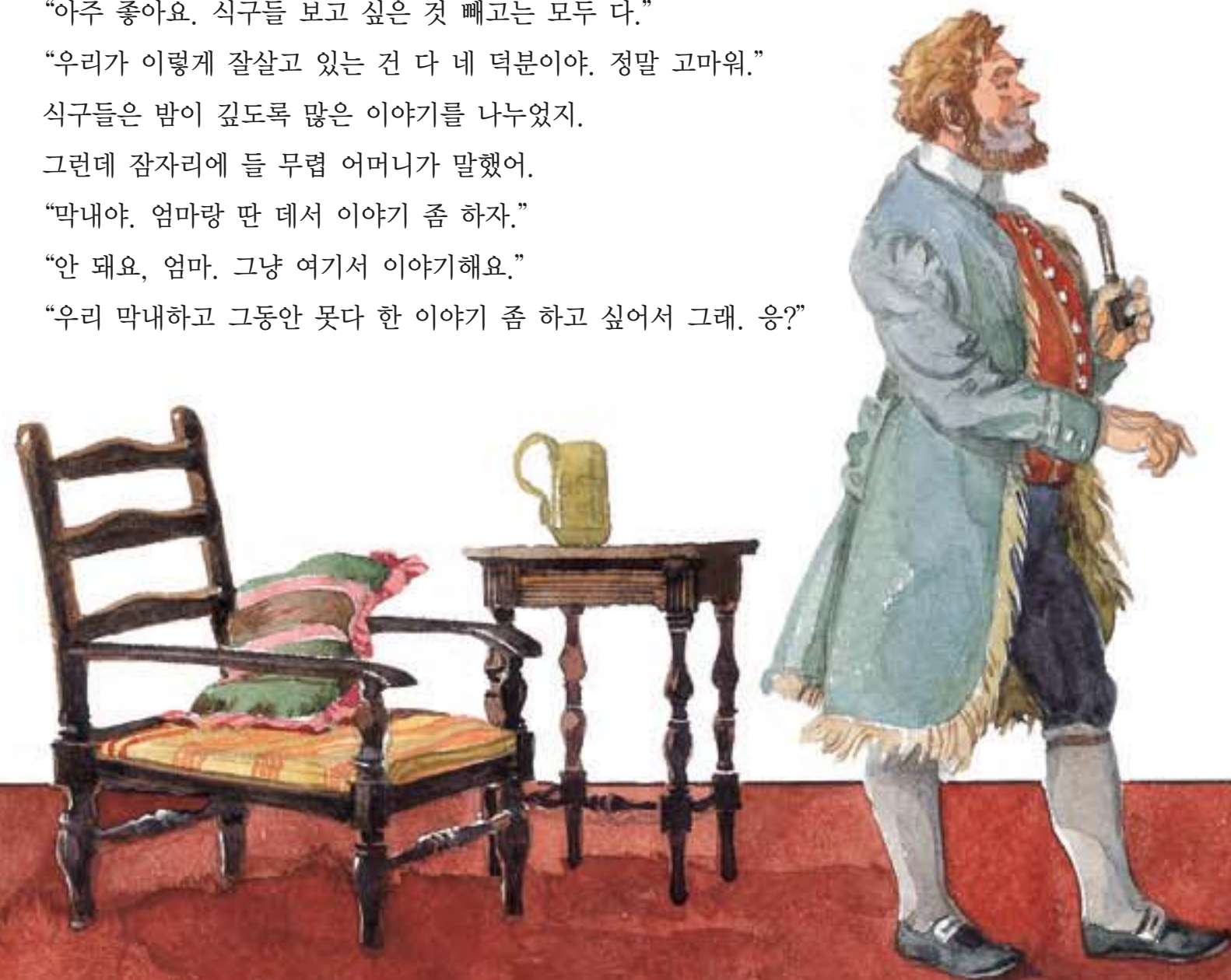
식구들은 밤이 깊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

그런데 잠자리에 들 무렵 어머니가 말했어.

“막내야. 엄마랑 판 데서 이야기 좀 하자.”

“안 돼요, 엄마. 그냥 여기서 이야기해요.”

“우리 막내하고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그래. 응?”





솔직히 막내도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었어.
 그런데 막내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밤마다 찾아오는 이상한 남자에 대해서 말하고 말았단다.
 “신기한 일이구나. 그럼, 여태껏 그 남자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거니?”
 “네, 캄캄한 밤에 들어왔다가 동트기 전에 나가니까요.”
 “그럼 초를 하나 줄게. 그 남자가 잠들면 촛불을 켜고 보는 거야.”
 막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다음 날 아침, 흰곰이 다시 막내를 데리러 왔지.
 “별일 없었나요?”
 착하디착한 막내는 거짓말을 못하고 사실대로 모두 털어놓고 말았어.
 그러자 흰곰이 펄쩍 뛰며 말했지.
 “안 돼요!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에요!”
 놀란 막내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단다.



밤이 되자 언제나처럼 남자가 들어와 막내 곁에 누웠어.
 막내는 남자의 얼굴이 궁금해서 전딜 수가 없었지.
 그래, 한참을 킁킁가슴 두근거리며 망설이다 그만 촛불을 켜고 만 거야!
 순간 막내는 깜짝 놀랐어. 별처럼 아름다운 왕자님이 누워 있었거든.
 한눈에 마음을 빼앗긴 막내는 더 가까이에서 보려고 조심조심 고개를 숙였단다.
 그런데 아뿔싸! 왕자의 속옷 위에 뜨거운 촛농이 주르륵 떨어지고 말았어.
 뜨거운 기운에 놀란 왕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
 “이, 이게 무슨 짓이요?”
 막내는 어쩔 줄 몰라 찢찢맸어.
 “이제 모두 틀렸어. 일 년만 참고 기다려 주었다면 마법에서 풀려났을 텐데!”
 왕자가 슬퍼하며 한탄했어.
 “나는 낮에 흰곰이 되도록 마술에 걸려 있었어요. 모두 마귀할멈의 짓이지요.
 이제 난 당신을 떠나 해님의 동쪽, 달님의 서쪽에 있는 성으로 가야 해요.
 그곳에서 마귀할멈의 딸인, 꼬불꼬불 꼬부라진 긴 코를 가진 공주와
 결혼해야 한단 말이지요.”
 막내가 울며불며 가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왕자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



와,
잘생겼다.



다음 날 아침 막내가 눈을 떴을 때
 왕자는 이미 해님의 동쪽, 달님의 서쪽에 있는 성으로 떠나고 없었어.
 금과 은으로 된 아름다운 성도 모두 사라지고, 막내는 홀로 숲 속에 누워 있었지.
 한참을 울먹이던 막내는 마음을 굳게 먹고 왕자를 찾아 떠나기로 했단다.
 험한 숲 속을 헤맨 지 며칠이나 되었을까?
 어느 산골짜기에서 금 사과를 가지고 놀고 있는 빨강 머리 요정 할멈을 만났지.
 “저, 혹시……해님의 동쪽, 달님의 서쪽에 있는 성을 알고 있나요?
 꼬불꼬불 꼬부라진 긴 코를 가진 공주와 결혼할王子님을 찾아가려고요.”
 “오, 네가 그王子님과 결혼하려 했던 아가씨로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막내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주르륵 떨어졌어.
 “저런, 울지 마라! 나는 잘 모르지만, 아마 내 친구 파랑 머리 요정이 알고 있을 거야.
 자, 이 말을 타고 가렴. 도착하거든 왼쪽 귀 밑을 살짝 때리고 돌아가라고 말하면 돼.
 그리고 이 금 사과는 품속에 넣어 두렴. 쓸모가 있을 테니.”
 금 사과를 품속에 넣은 막내는 말 위에 올라타고 길을 떠났지.



몇 날 며칠을 달렸을까? 마침내 파랑 머리 요정 할멈의 집이 나타났어.
 막내는 말의 왼쪽 귀 밑을 살짝 때린 뒤 말했다.
 “데려다 줘서 고마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렴.”
 그러고는 요정 할멈에게 해님의 동쪽, 달님의 서쪽에 있는 성으로 가는 길을 물었지.
 “어쩐담? 나도 잘 모른다. 하지만 내 친구 노랑 머리 요정에게 가 보렴.
 나보다 아는 게 많거든. 참, 이 금 실패를 가지고 가렴. 쓸모가 있을 거야.”
 파랑 머리 요정 할멈이 실을 감던 금 실패를 건네며 말했어.
 그러고는 말 한 마리를 내주며, 역시 왼쪽 귀 밑을 살짝 때려 돌려보내라고 했지.
 금 실패를 품에 넣은 막내는 다시 힘을 내어 말을 달렸단다.
 달리고 또 달려 어느 산에 이르자,
 노랑 머리 요정 할멈이 금 물레를 돌리고 있었어.



막내는 파랑 머리 요정 할멈의 말을 돌려보낸 뒤, 웃으며 인사를 했단다.
 “안녕하세요?”
 “오, 네 소문을 들었지! 하지만 그 성으로 가는 길은 나도 잘 모르는걸!”
 “그럼 누가 그 길을 알까요?”
 “동풍이라면 분명 알 거야. 자, 내 말을 빌려 주마. 돌려보내는 법은 알지?
 그리고 이 금 물레도 필요할 테니 가지고 가렴.”
 “고맙습니다. 할머니!”
 막내는 이제 실망한 기색도 없이 금 물레를 챙겨 또 떠났단다.



여러 날이 지난 뒤에야 막내는 동풍의 집에 도착했지.
 “호, 거긴 너무 멀어서 가 본 적 없어! 나보다 힘센 서풍은 알러나? 호!”
 동풍이 호호 입김을 불며 말했어.
 “자, 말은 돌려보내고 내 등에 타렴. 서풍에게 데려다 줄게. 호!”
 막내가 노랑 머리 요정 할머니 빌려 준 말을 돌려보내자,
 동풍은 한들한들 몸을 펴서 커다랗게 부풀렸어.
 그리고는 막내를 태우고 서풍의 집으로 ‘썩!’ 하고 날아갔지.

하지만 서풍도 해님의 동쪽, 달님의 서쪽에 있는 성으로 가는 길을 몰랐단다.
 “에, 에취! 너무 실망하지 마. 나보다 힘센 남풍은 알지도 몰라. 에, 에취!”
 서풍이 연방 재채기를 하며 지친 막내를 위로했어.
 “자, 여기 올라타렴. 내가 데려다 줄 테니. 에, 에취!”
 살랑살랑 몸을 펴서 부풀린 서풍이 등을 내밀었지.
 막내는 서풍을 타고 ‘횡!’ 날아 남풍한테로 갔단다.



남풍의 집에 도착한 막내는 다시 남풍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아함, 나는 거기까지 가 본 적이 없어 잘 몰라. 아, 북풍이라면 알 거야!

나보다 훨씬 힘이 세니까. 북풍이 모른다면 아마 아무도 모를걸. 아함!”

남풍이 하품을 하며 말했어.

“내가 데려다 주지. 북풍네 집까지는 아무나 못 간단다. 아함!”

술술 몸을 펴서 부풀린 남풍은, 막내를 태우고 ‘휙!’ 날아 북풍에게 갔지.



북풍네 집은 썩썩 부는 찬 바람에 덜커덕덜커덕 흔들리고 있었어.

“쿵! 뭐 하러 왔니? 쿵!”

북풍이 차가운 콧바람을 쿵쿵거리며 물었어.

“해님의 동쪽, 달님의 서쪽에 있는 성을 알고 있나요?”

“쿵! 옛날에 작은 나뭇잎 하나를 그곳에 데려다 준 적은 있는데 너무 멀어서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왜? 쿵!”

막내가 북풍에게 오기까지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

북풍은 얼음같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정말 따뜻했단다.

두말 않고 선뜻 가여운 막내를 도와주기로 한 거야.

“쿵! 그럼 오늘 밤은 여기서 쉬고, 내일 아침에 가도록 하자.

꼬박 하루는 걸릴 테니 꼭 쉬렴. 쿵!”

막내는 기뻐하며 북풍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지.

이튿날 아침, 북풍은 모든 힘을 그리모아 터질 정도로 몸을 부풀렸단다.
 불끈불끈 부풀어 오른 몸에 막내를 태우고 쏜살같이 솟아올라 몸을 날렸어.
 북풍이 어찌나 센지 지나는 곳마다 나무와 집들이 휙휙 날아올랐고,
 바다 위의 파도가 넘실넘실 울렁울렁 신 나게 춤을 춰 댔고,
 사막의 모래 산도 팽그르르 돌다가 사방으로 흩어졌지.
 어느덧 서서히 힘이 빠진 북풍은 점점 아래로 처지며 말했어.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저기 바닷가에 보이는 성이란다.”
 지칠 대로 지친 북풍은 막내를 겨우 바닷가에 내려놓고는 널브러져 버렸지.
 “나는 며칠 쉬었다 떠나야겠다. 자, 얼른 가 보렴.”
 막내는 북풍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성으로 뛰어갔다.

와, 해님의 동쪽,
 달님의 서쪽에
 있는 성이다!



마침내 막내는 해님의 동쪽, 달님의 서쪽에 있는 성에 도착했지만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몰라, 성 주위만 뱅뱅 돌고 있었단다.

다음 날도 빨강 머리 요정 할멈이 준 금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성 주위를 서성이고 있었지.
이때 꼬불꼬불 꼬부라진 긴 코를 가진 공주가 창문으로 우연히 막내를 보았어.

공주는 얼른 내려와 문을 빠끔 열고 얼굴을 내밀었지.

“이봐, 아가씨! 그 금 사과 예쁜걸. 나한테 팔지 않을래?”

욕심 많은 공주가 금 사과를 보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

순간 막내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단다.

“싫어요! 성안에 있는 왕자님 곁에 하룻밤 있게 해 준다면 모를까.”

“좋아! 그 정도쯤이야! 자, 그럼 이제 금 사과는 내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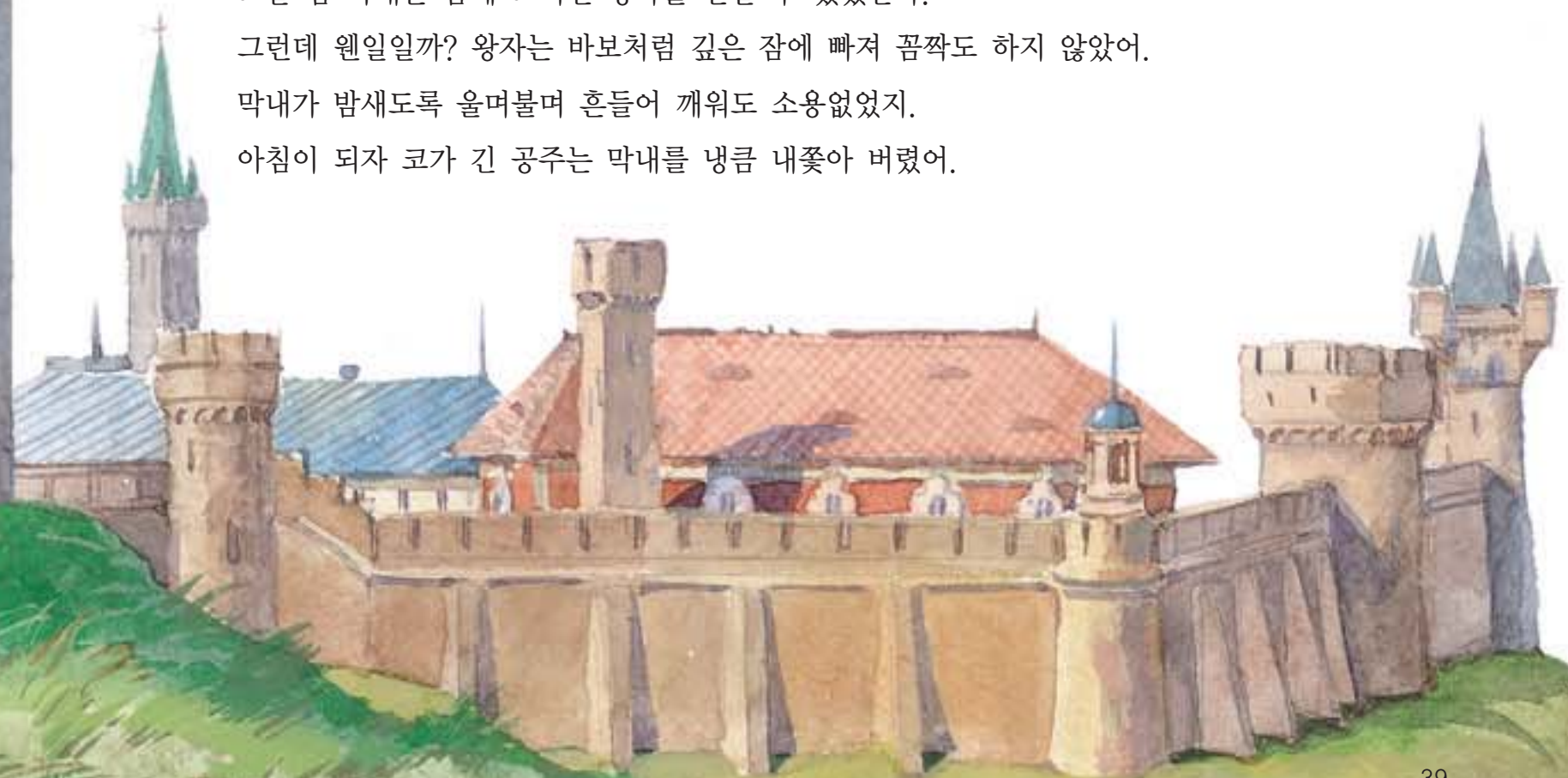
코가 긴 공주가 얼른 금 사과를 빼앗았지.

그날 밤 막내는 꿈에 그리던 왕자를 만날 수 있었단다.

그런데 웬일일까? 왕자는 바보처럼 깊은 잠에 빠져 꿈쩍도 하지 않았어.

막내가 밤새도록 울며불며 흔들어 깨워도 소용없었지.

아침이 되자 코가 긴 공주는 막내를 냉큼 내쫓아 버렸어.



막내는 다시 힘을 내어 성문 앞으로 갔지.

그러고는 품속에서 금 실패를 꺼내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실을 감았어.

욕심 많은 공주가 틀림없이 금 실패를 탐낼 거라고 생각했거든.

아니나 다를까, 코가 긴 공주는 곧 머리를 내밀고 금 실패를 팔라고 졸랐지.

“왕자님 곁에 하룻밤 있게 해 준다면 모를까, 그럴 수는 없지요.”

“좋아, 좋아! 그럼 금 실패도 내 거다!”

코가 긴 공주는 획 금 실패를 낚아채 갔어.

하지만 그날 밤에도 왕자는 막내가 온 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

막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왕자를 깨울 수 없었단다.

다음 날 아침, 막내는 다시 쫓겨나고 말았지 뭐야.

막내는 마지막 힘을 내어 성문 앞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덩실덩실 어깨춤도 추면서 금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어.

꼬불꼬불 꼬부라진 긴 코를 가진 공주는 또 욕심이 생겨 머리를 내밀었지.

“그 금 물레 이리 줘. 그럼 오늘 밤 왕자님 곁에 있게 해 줄게.”

이번에는 꼭 왕자님을 깨우리라 굳게 마음먹고 막내는 금 물레를 내주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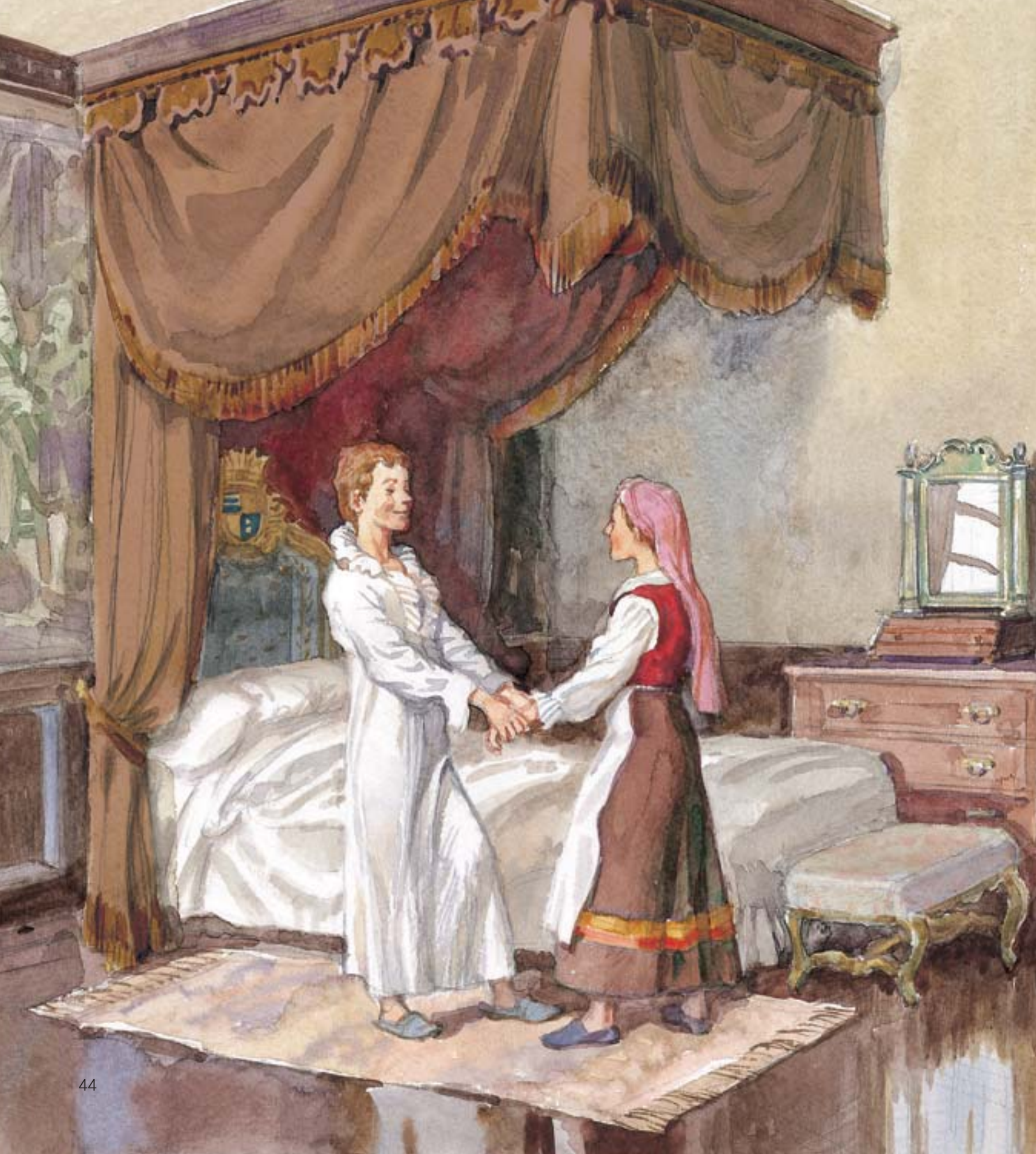


왕자님,
어서 일어나세요.
제발…….



한편 성에는 마귀할멈에게 잡혀 온 착한 사람들이 여럿 살고 있었어.
 그중 왕자의 옆방에 사는 사람이 막내의 울음소리를 들었단다.
 같은 일이 이틀이나 계속되자, 이상하다고 여긴 그 사람은 낮에 왕자를 찾아갔지.
 “어떤 아가씨가 왕자님 방에서 이틀 밤이나 울고 갔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그걸 내가 모를 리가? 설마…….”
 왕자는 막내가 찾아왔다는 것을 바로 눈치 챘어.
 그리고 지난 이틀 동안 잠들기 전, 공주가 차를 권했던 것도 기억해 냈지.
 바로 차 속에 잠자는 약이 들어 있었던 거야.
 밤이 되자 코가 긴 공주는 어젯밤처럼 또 뜨거운 차를 들고 와 권했어.
 하지만 모든 걸 안 왕자는 마시는 척하며 다 쏟아 버렸단다.
 그러고는 ‘드르렁 쿨쿨, 드르렁 쿨쿨’ 잠이 든 척했지.





잠시 후, 다박다박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마침내 문이 달각 열렸어.
 왕자는 실눈을 뜨고 바라보았지. 막내였어!
 왕자는 벌떡 일어나 두 팔을 활짝 벌렸단다.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왕자가 기쁨에 넘쳐 말하자, 막내도 왕자의 품으로 달려가 와락 안겼단다.
 “하루라도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내일이 바로 꼬불꼬불 꼬부라진 긴 코를 가진 공주와 결혼하는 날이거든요.”
 “그, 그럼 어떡하죠?”
 “이제 내 말을 잘 들어요. 나는 내일 마귀할멈에게
 내 아내가 될 공주를 시험해 보겠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전에 당신이 촛농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얼룩진 내 속옷을 빨게 할 거예요.”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아니예요. 악한 자는 결코 더러움을 빨 수 없어요.
 당신처럼 착한 사람만이 빨 수 있지요.
 내가 그 속옷을 깨끗이 빨 수 있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우길 테니,
 당신이 빨아 주세요. 알겠지요?”
 말을 마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서로를 마주 보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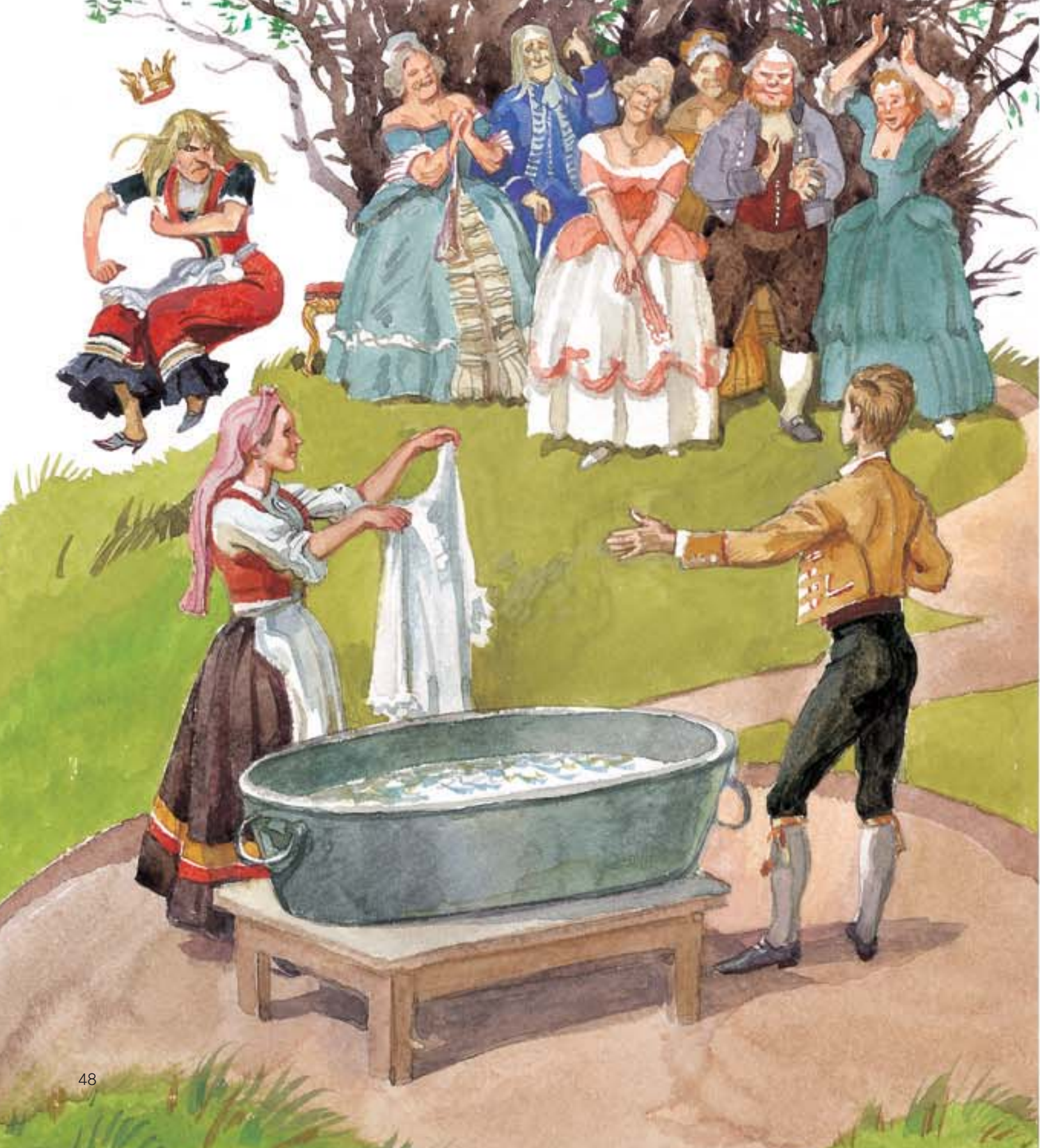
드디어
다시 만났구나.



정말
다행이야.

어느새 밤이 지나 다음 날 아침이 되었지.
 해님의 동쪽, 달님의 서쪽에 있는 성에서는
 왕자님과 코가 긴 공주의 결혼식이 막 시작되려던 참이었어.
 “잠깐! 저는 제 아내가 될 사람의 자격을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왕자가 큰 소리로 외쳤지.
 “흥, 그것도 괜찮지!”
 마귀할머니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히죽 웃으며 대답했어.
 마술을 부리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왕자는 촛농으로 얼룩진 속옷을 높이 들고 단호하게 말했어.
 “저는 이 속옷을 깨끗이 빨 수 있는 사람하고만 결혼할 생각입니다!”
 꼬불꼬불 꼬부라진 긴 코를 가진 공주는 그까짓 것쯤이야 했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코가 긴 공주가 빨면 빨수록 속옷은 더욱 더러워졌어.
 “저리 비켜라! 엄마가 한번 빨아 볼 테니.”
 당황한 마귀할머니가 공주를 밀쳐 내고 빨아 봤지만 속옷은 더 더러워졌지.
 “무리무리 부리부리 수리수리 구리구리 두리두리……얏!”
 아무리 주문을 외우며 빨아도 소용이 없었던단다.





“음, 내 속옷을 빨지 못하는군요.”

“아, 아니. 이걸 이상해. 그 속옷이 잘못된 거야!”

꼬불꼬불 꼬부라진 긴 코를 가진 공주와 마귀할멈이 마구 날뛰기 시작했어.

“글쎄요. 그럼 저 구석에 있는 아가씨에게 빨아 보게 할까요?”

왕자는 모른 척 구석에 서 있던 막내를 불러냈어.

“깨끗이 빨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 보겠어요.”

막내가 속옷을 빨래 통에 넣고 얼룩을 비비자 속옷은 금세 깨끗해졌지.

“당신이 바로 내 아내가 될 사람ियो!”

왕자가 소리치자, 마귀할멈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뽕 터져 버렸어.

그리고 꼬불꼬불 꼬부라진 긴 코를 가진 공주는 이리저리 날뛰다가

나뭇가지에 코가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니, 툭 떨어져 죽고 말았지.





못된 마귀할멈과 그 딸이 죽자, 모두가 기뻐했단다.
왕자와 막내는 축하를 듬뿍 받으며 멋진 결혼식을 올렸어.
그러고는 간혀 있던 사람들을 모두 구해 내고,
곳곳에 쌓여 있던 보물들을 가득가득 수레에 싣고,
해님의 동쪽, 달님의 서쪽에 있는 성을 빠져나왔지.
그 뒤 왕자와 막내는 일 년 내내 꽃이 피는 아름다운 나라로 가서
금과 은으로 성을 짓고, 막내네 식구들도 모두 불러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

모두 행복해져서
참 좋다!

글과 그림

글을 새로 쓴 박안나 선생님은

1992년 젊은엄마창작동화에 입상하면서 동화를 쓰기 시작했어요. 1997년에는 <대감 항아리>로 대교눈높이문학상을 수상했고, EBS창작동요제에서 ‘엄마하고 부르며’로 입상했어요. 작품으로는 <행주 누나>, <들쥐 새각시는 고양이를 좋아해>, <향기 내는 굴뚝>, <퐁금 도둑> 등 다수가 있으며, 현재 ‘한국아동문학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림을 그린 아나톨리 잇킨(Anatoly Itkin) 선생님은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어요. 수리코프 국립 예술 대학(Surikov State Art Institute)을 마친 후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으며, 이탈리아 볼로냐 도서전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참여했어요. 그린 책으로는 <Invisible man(투명 인간)>, <Tom Sawyer(툼 소여)>, <The Prince and the Pauper(왕자와 거지)> 등 다수가 있어요. 이 책의 그림은 수채 물감으로 붓의 터치를 살려 그렸으며, 노르웨이의 풍경과 문화를 잘 표현했어요.

모야모와 아누를 그린 김혜민 선생님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고, 지금은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에 그림을 그리고 글도 쓰고 있어요. 그린 책으로는 <종이 접기>, <뽕날개가 돌아왔어요>, <지붕 위의 의자>, <안개> 등 다수가 있어요. 모야모와 아누는 수채화 기법과 다양한 무늬의 종이, 잡지, 형겔 등을 이용한 콜라주 기법을 써서 생동감 있고 재미있게 표현하였어요.

환공한테 시집갈게요

발행처 | ㈜교원 :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258 대표전화 | 02-563-9090, 080-023-9091 등록번호 | 제300-1971-1호 발행인 | 이정자 편집 책임 | 박두이 글 | 박안나
그림 | 아나톨리 잇킨 기획·편집 | 윤미영, 김보인, 지미라 편집 디자인 | 여인희, 김유정, 김소정, 문지연 제작 | 문상화, 전승호, 김권식 재판 | 상현 프로세스 :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36-1 인쇄 | ㈜감우문화 :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469 제본 | ㈜이우제책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47-1 인터넷 |
<http://www.kyowon.co.kr> 1판 1쇄 인쇄일 | 2006년 10월 20일 1판 1쇄 발행일 | 2006년 10월 20일

©2006 Kyowon Co., Ltd.

<모야모와 아누의 세계 옛이야기>는 (주)교원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본사의 동의나 허락 없이는 내용이나 그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ISBN 89-21-42635-3 ISBN 89-21-00073-9(세트)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Printed in Korea

△ 주의 |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본 교재를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고온 다습한 장소나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에는 보관을 피해 주십시오.

<모야모와 아누의 세계 옛이야기>는

우리 어린이들이 세계로 나아가는 데

알찬 밑거름이 되고 싶습니다.



값 9,000원